

스포츠 포커스

# ‘전국 최강’ 광주 검도의 맥 우리가 있다

## 광주 서석중 검도팀

광주 서석중(교장·최 건) 검도팀이 내리치는 죽도(竹刀) 끝엔 예사롭지 않은 힘이 실려있다.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학생검도대회 결승에서 강호 익산중을 꺾고 올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던 서석중이 여세를 몰아 내달 열리는 용인대총장배대회와 11월 추계전국대회까지 거머쥐며 ‘전국 최강’을 굳혀겠다는 기세다.

지난 26일 서석중체육관엔 광주검도를 대표하는 학교팀들이 모두 모였다. ‘만황’ 조선대팀부터 서석고·설월여고 그리고 ‘막내’ 서석중까지 총 50여명이 하계훈련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이 내지르는 힘찬 기합소리와 죽도소리는 체육관을 찢어파는 울림에서 밖으로까지 새어나오고 있었다.

순간 ‘광주검도의 힘’이 느껴졌다. 또한 그 속에서 형·누나들 못지않게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막내들의 다부진 모습에서 당분간 광주검도의 명성은 계속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었다.

특히 서석중 선수들이 대부분 고교·대학·일반부까지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이들의 조직력과 기량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합동훈련을 통해 실전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다는 게 큰 힘이다. 전국대회를 앞두고 고교 선배들과 연습경기를 자주 가지며 한 수 지도 받다보면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맞붙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배들의 실전지도 외에도 학교측의 든든한 지원도 이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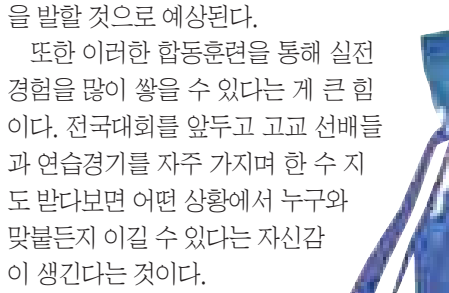
체육관 내 한쪽 벽면에 크게 걸린 두 장의 플래카드엔 한국검도회와 광주광역시검도회가 새겨 있다. 서석중 최상욱 이상장이 대한검도회장을 역임했고, 최용훈 법인실장은 현재 광주시검도회장을 맡고 있다. 이같은 학교측의



왼쪽부터 오상은 코치·김동민·임기정·김범수·고현준·노제호·이창의·김동언·지인강·한상우 선수·이강산 감독.

검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전국 정상급’이라는 점이 선수들에겐 또 하나의 큰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서석중의 또하나의 강점은 선수 가족들도 대부분 검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 중에 유단자가 있는 선수도



다섯명이나 된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함께 했던 검도가 지겹거나 힘들기 보다는 즐겁고 더욱 신나는 운동이 된 것이다. 이렇듯 선배·학교·학부모 등 주변의 뜨거운 응원 속에 서석중 검도팀의 기량은 매년 커가고 있다. 전국대회 우승 6회, 준우승 3회, 3위 2회, 지난 1989년 창단해서 지금까지 일곱번 서석중의 단체전 성적이다. 여기에 개인전 우승까지 더하면 그들의 입상경력은 너무 화려하다. 이러한 성적표에는 술한 선배들의 땀과 투혼이 담겨있다. 특히 이들 중 김태호·오길

현·김용철·최철규는 태극마크를 달고 모교와 국가의 명성을 세계에 날린 자랑스런 국가대표들이다.

선배들의 뒤를 이어 9명의 어린 선수들은 매일 강훈련에도 흔들림없이 구슬땀을 흘려오고 있다.

주장을 맡고 있는 김동민(3년·178cm)은 뛰어난 체격조건에 체력과 기량도 전국 정상급이다. 1학년 때부터 월등한 기량을 보인 그는 그간 전국대회 술한 입상 경력과 함께 지난 문화관광부장관배 우승의 주역이

기량을 갖추기 위해 더욱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서석중 검도팀의 또하나 특징은 운동 뿐만 아니라 지·덕·체를 고루 갖출 수 있도록 학업에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예의를 중요시하는 운동을 하는 만큼 학생으로서 학교에서도 모범을 보이며 술선수범하는 학생으로 생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검도팀은 한가지 운동만 잘하는 선수가 아닌 여러가지 운동을 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여가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겨울방

### 문광부장관배 우승 ... 올 3관왕 목표 학업 충실·운동도 만능 ‘팔방미인’들 학교·선배·학부모 등 응원도 뜨거워

다. 충남 천안에서 검도를 시작한 팀내 최장신 임기정(3년·181cm)은 부모의 고향으로 내려와 본격적으로 운동을 배우고 있는 ‘검도유학생’이다. 받아치기 기술이 뛰어난 그는 전국대회 개인전 우승이 목표이다.

2학년도 5명이나 꽤 팀의 ‘허리’도 든든하다. 고현준(173cm)·김범수(153cm)는 발이 빨라 상대의 허점을 잘 잡아내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영암서 유학온 노제호(165cm)는 연속공격이 좋고, 이창의(165cm)는 비록 늦게 운동을 시작했지만 집중력이 좋아 날로 기량이 향상되고 있다. 지난해 소년체전 우승의 주역 김동언(168cm)은 공부도 잘하는 ‘다재다능형’이다.

이밖에도 지인강(1년·158cm)·한상우(1년·173cm)는 팀의 막내로 선배들 못지않은

학업 스키·스노우보드·스케이트, 여름방학엔 수영·레프팅·야영 등 계절에 맞는 레포츠도 즐기는 말그대로 ‘팔방미인’팀이다.

검도팀을 이끌고 있는 이강산 감독과 오상은 코치도 서석중·고를 졸업한 동기로서 어린 후배들을 육성하는데 환상의 호흡을 맞춰가고 있다.

이 감독은 “학교측의 든든한 지원으로 큰 어려움 없이 훈련하고 있지만 힘든 운동을 발휘할 수 있는 검도인으로 키우겠다. 아울러 내년 전국소년체전에선 반드시 정상을 탈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 검도 알고 보면 더 재미있다

#### 머리·손·허리·목 먼저 치고 찌르면 ‘한판’

▲장비=검도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는 상대를 공격하는 죽도와 신체를 보호하는 호면·갑·갑상 등이 있다. 흔히 도복이라고 하는 단려복은 면으로 만든 감청색 혹은 흰색의 반소매 상의와 통이 넓은 긴 바지를 착용한다. 특히 죽도는 칼을 대신 하는 것으로 경기에는 그 규칙을 정해놓고 있다.

▲경기시간 및 방법=검도경기는 개인전과 단체전이 있다. 경기시간은 성인은 4~5분으로 하고 있으며, 여자부와 학생부는 3~4분으로 하고 있다. 승패를 가리는 방법은 제한시간 내 세 판중 두 판을 먼저 따낸 사람을 승자로 한다. 승부가 나지 않았을 경우엔 연장전을 갖는데 이때는 한판을 먼저 취한 사람이 승자가 된다. 단체전의 경우 선봉부터 주장까지 경기를 하고 승부가 나지 않았을 때 대표전을 실시한다.

▲특점=검도는 치고, 찌를 수 있는 부위가 정해져 있다. 머리·손·허리·목 부위가 바로 그곳이다. 이 네 곳 중 어느 곳이든 먼저 치고 찌르는 선수가 ‘한판’을 따내는 것이다.

▲단체전 경기 순위=5명 또는 7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 5인조 경기는 선봉·2위·중견·부장·주장, 7인조 경기는 선봉·2위·3위·중견·5위·부장·주장 순서

로 출전한다.

◇5인조 단체전 순위별 역할

1. 선봉=5명 중 나이가 젊고 앞으로 중견 혹은 주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인 중에서 가장 빠르고 경기에서 밀리지 않는 사람을 기용한다.

2. 2위=5명 중 기량이 낮은 선수를 기용하는 편이며 선봉이 지게되면 반드시 시비기거나 이겨야하는 자리이다. 흔히 2위는 비겨도 잘 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3. 중견=매우 중요한 자리. 항상 노련미가 있고 승리의 첫 출발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 운영 감각이 뛰어난 선수로 준 에이스를 기용하는 경우가 많다.

4. 부장=1-2로 지고 있는데 상대가 본인보다 뛰어난 선수라면 적어도 시간을 끌어 비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존심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이기고 있다면 주장만큼이나 마무리와 굳히기를 할 줄 아는 선수를 기용한다.

5. 주장=주장의 자질은 선봉과 중견의 역할을 모두 겸비한 선수로 선봉의 패기와 중견의 노련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경기에서 주장이 지면 시합이 이겼다 하더라도 패한 경기라 말할 정도로 주장의 역할이 매우 크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대한민국 종합일간지

# CBS

##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뉴스전화: 02-3779-8008

---

**RADIO**

1. **뉴스 9시**  
뉴스 9시 1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2. **뉴스 12시**  
뉴스 12시 1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3. **뉴스 5시**  
뉴스 5시 10분부터 5시 30분까지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COMENT**

1. **뉴스 9시**  
뉴스 9시 1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2. **뉴스 12시**  
뉴스 12시 1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3. **뉴스 5시**  
뉴스 5시 10분부터 5시 30분까지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

**TV**

1. **뉴스 9시**  
뉴스 9시 1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2. **뉴스 12시**  
뉴스 12시 1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3. **뉴스 5시**  
뉴스 5시 10분부터 5시 30분까지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060-600-1031

www.cbsnews.com